

한국전쟁 시기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 민군관계 차원의 의의

양 병 기*

-
- I. 머 리 말
 - II. 유해발굴 사업의 경과와 민군관계 차원의 의의
 - 1. 유해발굴 조사의 경과
 - 2. 유해발굴 조사가 갖는 민군관계 차원의 의의
 - III. 맺 음 말 : 유해발굴 사업의 전망과 제안
-

I. 머 리 말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적 규모에서의 냉전체제와 그 대립구조는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미·소 중심의 냉전·분단체제 하에서 무력통일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총공세로 한국전쟁(1950. 6.25-1953. 7.27)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휴전 성립 이후에도 남북한의 분단체제를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북한과 기타 참전국 쌍방간에는 총 3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국방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명 피해손실은 50만명이며 민간인 피해도 약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공산군(북한·중공군)의 인명 손실은 150-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이같은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피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최

*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양병기, “한국전쟁의 국내적 의의,” 『國際政治論叢 特輯: 韓國戰爭의 歷史的 再照明』 (서울: 韓國國際政治學會, 1990), 320-321쪽.

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편), 『韓國戰爭 要約』 (서울: 國防部, 1986), 358쪽.

대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중에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한 주요 전쟁 중에서 10년간 지속된 월남전쟁(1964. 8.2—1975. 4.30)에서의 민간인·군인의 사상자 수는 2백여 만명이었다.³⁾ 이에 반하여,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에서의 사상자 수는 3백여만명으로서 전쟁수행 기간과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한국전쟁이 월남전쟁 보다 5배가 넘는 인명 피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기간중에 전사한 한국군 장병 중에서 103,000여명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2000년에 들어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하였으나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유해발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같은 한국전쟁 기간중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갖는 민군관계(民軍關係, civil-military relations)차원에서의 의의를 검토하고, 이어서 이 사업의 지속과 관련된 전망과 제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II. 유해발굴 사업의 경과와 민군관계 차원의 의의

1. 유해발굴 조사의 경과

한국정부는 2000년에 들어와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군 전사 장병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유해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발굴 조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념사업의 목적은 한국전쟁 기간중에 전사한 장병 중에서 미 확인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유해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관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아울러, 한국을 도와 싸운 해외 참전국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관련국에 인도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노력을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⁴⁾

이러한 기념사업의 목적에 입각하여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지난 2000년도에 들어와 최초로 실시된 제1차 전사자 유해발굴은 전반기(2000. 4.3—5.31)와 후반기(2000. 9.4—10.28)에 걸쳐

3) Ruth Leger Sivard,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91*, 14ed. (Washington, D.C.: World Priorities, Inc., 1991), pp.24-25.

4) 육군 유해발굴단·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6.25전사자 유해발굴 약보고서—2000년도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청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0), 21쪽.

6개 지역에서 발굴이 시작되었다. 전반기의 발굴지역은 전쟁발발부터 휴전직전까지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 중 경북 칠곡군 다부동·경주시 안강읍과 서울의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 지역에서, 후반기에는 강원도 화천군 마현리·강원도 양구와 다부동(재발굴)·안강(재발굴)지역에서 실시하였다. 6개 지역 발굴조사에는 박선주 교수(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책임조사원으로 한 유해발굴 전문인력과 함께 연인원 12,000명의 군병력이 투입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년도 발굴결과 총 344개체의 유해를 발굴하고 9,380점의 유류품을 출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⁵⁾

2차년도인 2001년의 유해발굴은 전반기(2001. 3.15-5.30)와 후반기(2001. 9.3-10.16)에 걸쳐 9개 지역에서 발굴이 계속되었다. 발굴은 전반기에는 경북 군위군 화산 지역·충북 진천 지역·경북 안강 지역·경기도 가평군 용문산 지역에서, 후반기에는 강원도 춘천과 화천 지역·강원도 인제 현리 지역·홍천 말고개 지역·경북 상주 및 다부동 지역과 경북 영천 갑령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 211개체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류품도 9,943점을 출토하였다.⁶⁾

3차년도인 2002년에는 226개체를 발굴함으로써 지난 3년동안 총 781개체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다.⁷⁾

2. 유해발굴 조사가 갖는 민군관계 차원의 의의

이와같은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갖는 의의는 여러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까지의 한국전쟁 기념사업은 반공옹변대회·기념 학술회의·전적지 답사나 한국전쟁 시기의 어렵던 생활상을 회상하기 위한 주먹밥 먹기 등 통상적인 기념행사로 일관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시작된 한국전쟁 기념사업에서는 한국전쟁 기간중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종래의 통상적이고도 일과성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의 성격을 넘어서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업으로의 성격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갖는 민군관계 차원에서의 의의를 아래에서 적시하여

5) 상계서, 36-46쪽.

6) 육군 유해발굴단·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6.25전사자 유해발굴보고서-2001년도 발굴조사를 중심으로』(청주: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27-47쪽.

7) 국방부 6.25기념 사업단·육군 유해발굴단·충북대학교 유해발굴센터, 『6.25전사자 유해발굴 보고서-2002년도 발굴조사를 중심으로』(청주: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25-43쪽.

보기로 한다.

첫째로, 한국사회 내부의 민군관계에 있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출현 이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게 부과된 국방의 의무는 전세계적인 공통현상이 되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그러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외부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징병에 응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전쟁 발생 시에는 전투원 등으로 참전하여 하나 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기능과 역할이 결합되는 데에서 국가 내부의 사회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민에 대하여는 그러한 국가 유공자가 살아있을 때나 사망한 이후에 까지도 영원히 그의 명예를 현양하고 국가가 보상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민군간의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좋은 실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사회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와는 달리 여러 인종·민족과 종교의 분포를 가진 복합사회의 중층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민은 성조기 아래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강한 사회통합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보상의 제도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중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당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50년전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여 그들의 국가적 공로와 명예를 현양하고 보상하려는 정책을 펼쳐 보이고 있다.⁸⁾

생존자와 사망 이후를 불문하고 국가 유공자를 끝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고 현양하려는 미국의 국가정책이 복합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군관계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중의 한국군 전사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가 유공자들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미발굴된 이들 호국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개시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한 것으

8) 2002년 10월 12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북한 내에서의 미군 유해 공동발굴 작업과 관련하여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모두 378구의 미군 유골을 미국측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613호(2002. 10. 11-2002. 10. 17), 28쪽.

로 의미가 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2000년도에 들어와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기간중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발굴조사를 개시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민에 대하여는 국가가 끝까지 그러한 국민의 명예를 현양하고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는 사회적 공약의 상징성을 부과함으로써 한국사회 내부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군관계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발굴사업을 주관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공로에 대한 평가이다. 국방부는 2000년도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종전과 다른 사업으로서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군 전사장병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유해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발굴 조사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기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따라, 육군본부는 발굴조사의 첫해인 2000년도에 실시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육군 유해발굴단을 구성하였고, 현장에서의 발굴 작업은 지역담당 사단장의 책임 하에 그 지역 부대 장병들이 전문발굴팀의 지원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발굴계획을 기획한 국방부의 방침은 앞서 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있는 제도적 보장정책과 관련하여 민군관계의 차원에서 시기적절하고 매우 유의미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굴 주관부서인 육군본부의 역할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 4월 3일 발굴조사가 개시된 이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00년 5월 3일 필자는 육군본부 주최로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계룡대 지역에 근무 하는 대령급 이상의 육군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0년도 육군발전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이 학술회의에서 필자는 토론을 통해 육군본부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의 의의를 논의할 수 있었다. 한편, 학술회의 과정에서 길형보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책임조사원인 박선주 교수가 발굴조사 작업과정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 그 내용은, 발굴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추가 증원과 정밀 발굴을 위한 발굴작업 기간의 연장 필요성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제안은 맞바로 육군 지휘부에 의하여 수용되어 고고학 등을 전공한 육군 전문발굴병을 추가 투입하고 발굴작업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행됨으로써 발굴작업에 반영되었다.

셋째로, 유해발굴 작업과정에서 책임조사원 박선주 교수 등의 민간 전문인력에 의하여 산출된 학술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전사자 유해발굴 과정에서 전사자들의 연령과 신장

등에 대한 형질 인류학적 특징 파악과 함께 발굴된 개인 유품을 통해 당시 생활을 추정 복원함으로써 50년 전 당시의 인류학적 조사가 가능하였다. 이와같이, 이번 발굴 조사 과정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에 관한 이론과 연구 방법 등에서의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전쟁 고고학 같은 새로운 학술연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의 민간전문인력이 주도하여 2000~2001년 기간중에 발굴된 555개체의 유해를 중심으로 한 성별구분과 나이 가늠하기·키재기 및 기타 해부학적 특징의 조사 결과는 우리의 주목을 끈다.⁹⁾

발굴된 유해는 모두 남성으로 60% 이상이 20~24세의 범위에 속하며 20% 정도가 15~19세 범위의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전쟁 전사자가 대부분 젊은 계층에 속하는 집단으로 나이 어린 범위의 사망자는 소년병과 의용군일 것으로 판단된다. 키는 대개 160~170cm 정도 범위가 거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60cm 이하도 14%정도에 달한다. 이와같이, 이 조사는 한국전쟁을 수행한 집단의 인류학적 특징과 한국전쟁 기간중의 한국인의 체질적 조사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연구 동향은 종전의 한국전쟁 발발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논의로부터 최근에는 전쟁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연구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전쟁에 관한 최근의 학술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2000년도에 실시한 전사자 유해발굴 과정에서의 연구조사 내용은 전쟁 고고학 등의 차원에서 한국전쟁의 학술적 연구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금번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발굴사업은 금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지향의 계기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도 유해발굴 과정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10구를 발굴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북한군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인도하거나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공산군 묘지에 안장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2000년에서 2003년 까지 진행될 계획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굴된 북한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남북한의 국방장관급 회담 등에서 의제로 제기함으로써 한국측의 인도적 사업의 취지를 선도하고 남북한의 평화 지향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로, 2000년도 유해발굴 과정에서 역시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1구가 발굴되어 미군

9) 이상의 조사결과는 박선주, “6.25 전사자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주최 2002년도 중원문화연구 추계학술대회(6.25 전사자 유해발굴) 발표논문 <2002. 11. 7(목), 충북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 3쪽.

측으로 인계되었다. 이와같이,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발굴사업은 참전 우방국가 장병의 전사자 유해도 발굴하여 인도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평화 지향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맺음말: 유해발굴 사업의 전망과 제안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에 개시한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민군관계를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 내부에서 발굴사업을 주관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헌신과 공로에 의하여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군관계와 관련한 사회통합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으로, 학술적으로는 한국전쟁의 연구를 전쟁고고학 등의 측면에서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본다. 또한, 금번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발굴사업은 금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지향의 계기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참전 우방국가 장병의 전사자 유해도 발굴하여 전달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국가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계속될 한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관련하여 몇가지의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민관군의 협조체제 속에서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유해 발굴사업의 장기적 지속을 위하여 중앙유해관리소 같은 기구를 창설하여 국가 상설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현재 미국이 북한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기구 편제와 운영방법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2000년도는 물론 2003년도 까지 실시될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이를 민관군 유관 기관에 자료집으로 전파함으로써 그 국가적 의의를 홍보함은 물론, 민군관계의 증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전쟁 관련 연구 학술단체에는 반드시 결과보고서 자료집을 배포하여 전쟁 고고학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하는 한편, 금번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의의를

학술적 차원에서 더 한층 고양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금후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범위를 북한지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한국사회 내부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군관계에 있어서 민군일체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 사업은 물론 북한 당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있을 제반 남북회담의 의제 제안에서 한국의 인도주의적인 평화지향성을 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